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의존 매개효과: APIMeM 적용*

고 수 연¹⁾ 박 정 윤[†]

본 연구는 부부의 성격요인인 외현적 자기애 특성과 상호관계적인 요인인 갈등대처방식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부 337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을 사용하여 AMOS 28.0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모형분석과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자기효과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간접 자기효과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아내의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쳐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외현적 자기애 특성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을 통해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의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애,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상호의존 매개모형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

† 교신저자 : 박정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pjy4838@ca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대사회에서 결혼만족은 부부의 결혼생활 지속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부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가족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제, 건강, 자녀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생활사건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부의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부부 모두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자녀의 결혼관 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한영숙, 양명숙, 2020; Karney & Bradbury, 1995).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조화롭고 기능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결혼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평가, 태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 등으로 정의된다(홍지희, 김보영, 2021; Roach et al., 1981). 초기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 관계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우울, 자아존중감, 성인애착, 자기분화 등과 같은 부부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안연주, 최연실, 2021; 이연정, 최은실, 2022; Finzi, 2023), 점차 배우자의 지지, 갈등대처방식, 문제해결유형,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부부의 상호작용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로 확대되고 있다(박지연, 주수산나, 2021; 강미선 등, 2023; 한영애, 양혜정, 2020; Cag & Yildirim, 2018; Ünal & Akgun, 2022a).

부부관계에서 부부 각자의 성격요인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성격 요인은 관계만족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부부의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통계청,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 부부의 개인 성격적 특성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병리적인 성격특성은 적응적인 관계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 병리적인 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관계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주요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한수정, 2018; Cramer, 2000). 따라서 부부의 갈등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자기애의 상처를 탐색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애는 평생에 걸쳐 진행되며, 자기대상과의 공감적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기애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자기애는 자기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주요개념이다. Kohut(1977)은 유아기에 자기대상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self)의 발달에 손상을 가져와 자기애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애는 결핍된 자기대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한수정, 2018; Augsburger, 1996). 자기애적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애적 외상을 회복하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한다. 배우자를 통한 자기대상 경험은 적절한 자기대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공감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면 수치심과 분노 감정에 취약해짐으로써 다시 자기애적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여 상황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과시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으로 인해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와 부적절한 상관이 있었으며(최선우, 이영호, 2015), 외현적 자기애의 배우자는 낮은 관계만족도를 보고하였다(Lamkin et al., 2015; Ye et al., 2016). 또한 외현적 자기애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낮추었으나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추었을 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성미, 이영호, 2021).

결혼만족도와 관련하여 관계적인 변인인 갈등대처방식은 부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변인으로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송진아, 전세송, 2023). 갈등대처방식은 갈등 시에 갈등처리와 적응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격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성격요인과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self) 개념과 갈등관리방식이 함께 연구되었다(장해순 등, 2007; Philip, 2001). 외현적 자기애는 갈등상황에서 파트너를 비판하고 비하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고, 권력에 대한 인식과 통제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Brown, 2017), 갈등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비난 행동과 자기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진, 정진복, 2017). 또한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하고,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분노표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Abe & Ota, 2023), 외현적 자기애의 갈등대처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 갈등대처방식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고,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외현적 자기애가 자신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부부의 상호성을 고려할 때,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가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부부 쌍 조사를 통해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가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

결혼관계에서 갈등은 존재할 수 있는데, 부부 간 갈등이 증가하면 서로 간에 애정이나 만족도는 낮아지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승현, 이규호, 2022; 홍지희, 김보영, 2021). 따라서 부부가 사용하는 갈등대처방식은 관계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부가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불안정한 결혼생활이나 가정해체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협력적인 건설적 방식의 갈등대처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부부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종선, 권정혜, 2002; Stanley et al., 2002).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갈등상황에서 의견을 속으로 삭히거나 격렬하게 논쟁하는 대처를 사용하는 여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차분한 대화와 협력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긍정적인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이승현, 이규호, 2022).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거나 회피적이고 순응적인 전략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홍지희, 김보영, 2021). 또한 남편과 아내가 갈등에 몰입할수록 결혼관계 질이 낮았는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에서는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철회와 아내의 갈등몰입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철회로 인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아내의 갈등몰입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Kurdek, 1995).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설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할수록 부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Ünal & Akgun, 2022; Işık & Kaya, 2022).

외현적 자기애는 관계에서 건설적인 주장이나 분노(ganger)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자기애적 격노(rage)로 반응하며 왜곡된 분노를 표출한다(Kohut,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대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외현적 자기애가 낮다고 인식하고, 타협적이고, 협력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우성범 등, 2012).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는 남편과 아내의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기애 유형이 갈등대처방식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의 자기애와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의 관

계에서 자기와 배우자의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혼남녀의 일방으로 수행되어(애리덴, 안정신, 2021; 이승현, 이규호, 2022), 개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본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를 부부 쌍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부 중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 밝힐 수 없는 배우자의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부부 개인의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이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 쌍을 대상으로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결혼관계에서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부의 각자의 요인인 외현적 자기애를 확인하여 자기의 회복을 돕고, 부부의 상호관계적 요인인 갈등대처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부부의 결혼만족

도 향상을 위한 상담적 개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부부의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의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부부 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2023년 9월 10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온라인 패널조사 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부부의 대리응답 가능성과 배우자를 의식한 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쌍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을 직접 발송하는 투웨이 방식(two-way)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한 쪽 배우자만 응답한 자료 15부를 제외하여 총 337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였다(1041078-20230719-HR-196).

측정 도구

외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DSM-III-R의 진단준거에 따라 황순택(1995)이 보완하여 개발한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중심성 하위요인에는 ‘어떤 일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과대함/자기칭찬과 주목욕구 하위요인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된 자기지가 하위요인에는 ‘나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18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적 자기애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외현적 자기애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5 이었다.

갈등대처방식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숙과 박경란(2009)이 Berko 등(1998)의 척도를 변안한 갈등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회피형, 타협형, 순응형, 지배형, 통합형 등의 하위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내용에는 ‘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 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나는 배우자와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록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에 맞춰주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와 의견 대립 시,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말하고, 배우자의 의견을 묻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하는 방식을 측정한다.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갈등대처방식의 부정문항이 포함된 회피형(5, 10, 15번), 순응형(1, 6, 11번), 지배형(2, 7, 12번)은 역점수화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방식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2 이었다.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규련(1988)이 Roach 등(198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s)의 척도를 12문항으로 재구성한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화, 짜증, 만족감, 후회감 등의 주관적인 느낌과 만족감을 측정한다. 척도의 내용에는 '나의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다', '나의 결혼생활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결혼만족도의 부정문항(3, 4, 8, 9, 10, 11번)은 역점수화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갈등대처방식이 매개하는 경로에서 남편과 아내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와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edermann 등(2011)이 제안한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 28.0과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를 검정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APIMeM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주요변인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등가제약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주요변인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으로 구성된 다중매개모형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16개의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추가하여 부트스트래핑을 다시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령의 분포에서 남편(38.9%)과 아내(44.5%) 모두 30세-39세가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에서는 남편(61.7%)과 아내(59.6%) 모두 대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남편(57.6%)과 아내(54.6%) 모두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60.8%)과 아내(42.27%) 모두 사무/관리/전문직이 가장 많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는 남편(71.8%)과 아내(68.5%) 모두 '중'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초혼(97.3%)이 재혼(2.7%)보다 많았고, 결혼지속기간은 10년 미만이 경우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3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부부 간 차이검증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부부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이 ±2보다 크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이 ±7보다 크지 않아, 정규 분포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다(Kline, 2010).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 평균은 남편이 3.36점($SD=1.65$), 아내가 3.27점($SD=1.74$)으로 중간값인 4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 대처방식 평균에서 남편은 3.18점($SD=.56$), 아내가 3.12점($SD=.70$)으로 중간값인 3점보다 약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7)

변수	구분	남편n (%)	아내n (%)
연령	20세-29세	16(4.7)	34(10.1)
	30세-39세	131(38.9)	150(44.5)
	40세-49세	108(32.0)	82(24.3)
	50세-59세	59(17.5)	56(16.6)
	60세 이상	23(6.8)	15(4.5)
교육수준	고졸 이하	47(13.9)	54(16.0)
	초대졸	48(14.2)	56(16.6)
	대졸	208(61.7)	201(59.6)
	대학원 이상	34(10.1)	26(7.7)
종교	기독교	84(24.9)	94(27.9)
	천주교	22(6.5)	30(8.9)
	불교	37(11.0)	29(8.6)
	무교	195(57.6)	184(54.6)
직업	사무/관리/전문	205(60.8)	144(42.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49(14.5)	30(8.9)
	자영업/농/임/어업	51(15.1)	21(6.2)
	전업주부/무직/은퇴	4(1.2)	121(35.9)
주관적 경제적 수준	상	11(3.3)	13(3.9)
	중	242(71.8)	231(68.5)
	하	84(24.9)	93(27.6)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6(6.8)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2(31.5)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243(36.1)	
결혼상태	7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10(16.3)	
	900만원 이상	63(9.3)	
결혼 지속기간	초혼	656(97.3)	
	재혼	18(2.7)	
자녀 수	10년 미만	372(55.2)	
	10년이상-20년 미만	141(20.9)	
	20년 이상-30년 미만	91(13.5)	
	30년 이상	70(10.4)	
전체	없음	218(32.3)	
	1명	198(29.4)	
	2명	206(30.6)	
	3명 이상	52(7.7)	
전체		337(100%)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부부 간 차이검증 (N=337)

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r
외현적 자기에	남편	3.36(1.65)	.42	-.84	1.00	7.00	1.015
	아내	3.27(1.74)	.40	-1.22	1.00	7.00	
갈등대처방식	남편	3.18(.56)	-.94	2.41	1.00	4.73	1.848
	아내	3.12(.70)	-.55	2.02	1.00	5.00	
결혼만족도	남편	3.63(1.02)	-.71	-.27	1.00	5.00	5.403***
	아내	3.34(1.04)	-.66	-.51	1.00	5.00	

간 높게 나타나, 부부가 적응적인 갈등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결혼만족도 평균은 남편이 3.63점($SD=1.02$), 아내가 3.34점($SD=1.04$)으로 모두 중간값인 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남편과 아내 모두 대체적으로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변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와 갈등대처방식은 남편과 아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에 비

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r=5.403, p<.001$),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생활의 부부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갈등대처방식($r=.589, p < .01$)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r=.551, p < .01$)뿐만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도 정적인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N=337)

	1	2	3	4	5	6	7	8
1. 남편 외현적 자기에	1							
2. 남편 갈등대처방식	-.522**	1						
3. 남편 결혼만족도	-.547**	.589**	1					
4. 아내 외현적 자기에	.588**	-.347**	-.424**	1				
5. 아내 갈등대처방식	-.479**	.564**	.551**	-.560**	1			
6. 아내 결혼만족도	-.569**	.463**	.553**	-.631**	.655**	1		
7. 결혼지속기간	.151**	-.161**	-.099	.074	-.185**	-.115*	1	
8. 자녀유무	.175**	-.053	-.126*	.089	-.114*	-.133*	.461*	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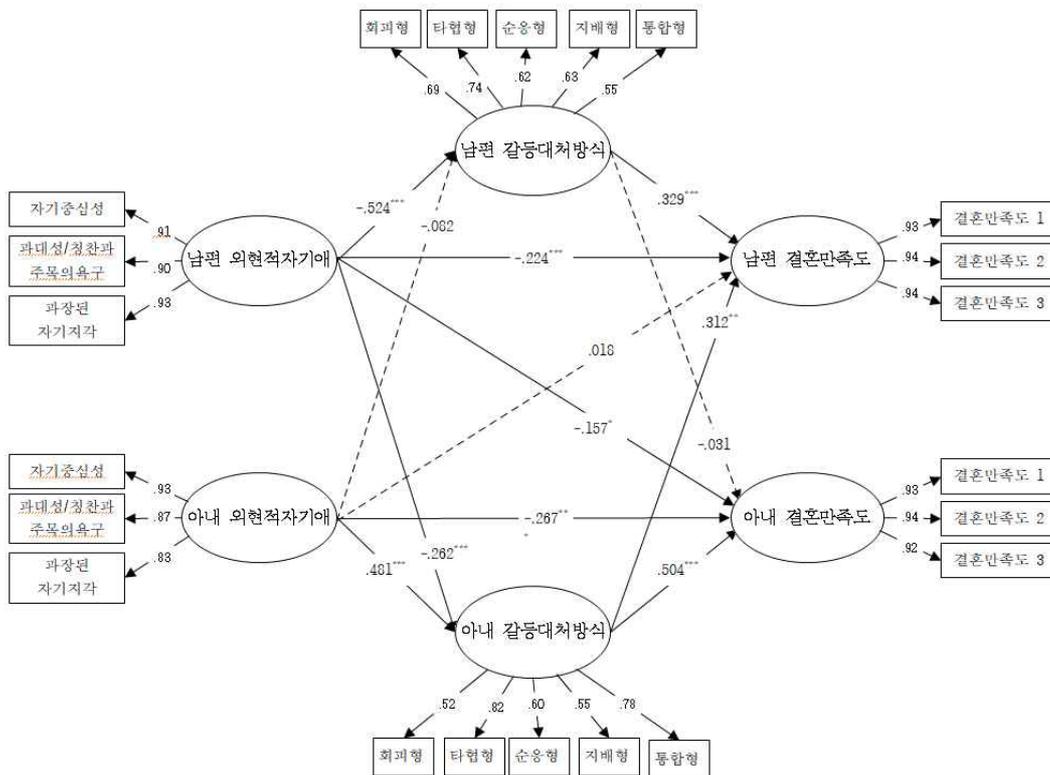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53, p < .01$). 그러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r=-.547, p < .01$)와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r=-.424, p < .01$)와 부적인 상관이 있었고, 아내의 결혼만족도 역시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r=-.631, p < .01$)와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r=-.569, p < .01$)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의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

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Ledermann et al.(2011)이 제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을 사용하였다. 이에, 구조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혼지속 기간과 자녀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성 판단으로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절대적합지수 GFI SRMR, RMSEA 수치와 증분적합지수 CFI, NFI 수치를 고려하였다. GFI, CFI, NFI는 0.9 이상이면 양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의존 매개모형

표 4 .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외현적 자기에 → 결혼만족도					
자기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에 → 남편 결혼만족도	-.162	-.224	.049	-3.305***
	아내 외현적 자기에 → 아내 결혼만족도	-.175	-.267	.045	-3.872***
상대방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에 → 남편 결혼만족도	.012	.018	.048	.245
	남편 외현적 자기에 → 아내 결혼만족도	-.113	-.157	.045	-2.496**
외현적 자기에 → 갈등대처방식					
자기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에 → 남편 갈등대처방식	-.271	-.524	.043	-6.372***
	아내 외현적 자기에 → 아내 갈등대처방식	-.154	-.481	.026	-5.843***
상대방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에 → 남편 갈등대처방식	-.039	-.082	.036	-1.071
	남편 외현적 자기에 → 아내 갈등대처방식	-.092	-.262	.026	-3.539***
갈등대처방식 → 결혼만족도					
자기효과	남편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456	.329	.123	3.722***
	아내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1.027	.504	.210	4.887***
상대방효과	아내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643	.312	.207	3.111**
	남편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043	-.031	.111	-.383

주: 결혼지속기간과 자녀유무 변수를 통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호한 수준이며 SRMR,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6).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49.516$, $df=229$, $p=.000$, $GFI=.900$, $CFI=.963$, $NFI=.928$, $SRMR=.047$, $RMSEA=.054$ 로 나타나 수용 가능하였다. 구조모형의 변인 간 영향력에 대한 시각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고, 구조모형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부의 외현적 자기에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의 외현적 자기에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224, $p<.001$)와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267$, $p<.001$)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의 외현적 자기에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편의 외현적 자기에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157$, $p<.01$)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외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결혼만족도를 낮게 인식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가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경로에서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524, p < .001$)와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481,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부부가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 = -.262, p < .001$)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329, p < .001$)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 = .504, p < .001$)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 모두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의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 = .312, p < .01$)만 유의하였고,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가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인 결혼지속기간은 남편의 결혼만족도($\beta = .088, p > .05$)와 아내의 결혼만족도($\beta = .045,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유무도 남편의 결혼만족도($\beta = -.056, p > .05$)와 아내의 결혼만족도($\beta = -.036, p > .05$)에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등가제약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구조모형에서는 두 경로 간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Delta\chi^2$ 을 통해 경로 간 유의성을 검증한다(우종필, 2016). 등가제약 분석에 의한 경로계수의 차이는 χ^2 의 차이가 .05 유의수준에서 3.84 이상이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7). 등가제약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모형	χ^2	df	$\Delta\chi^2$
외현적 자기애 → 결혼만족도 (자기효과 등가제약)	449.549 ^{***}	230	.032
외현적 자기애 → 갈등대처방식 (자기효과 등가제약)	454.129 ^{***}	230	4.612 [*]
갈등대처방식 → 결혼만족도 (자기효과 등가제약)	454.907 ^{***}	230	5.391 [*]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등가제약	449.887 ^{***}	230	.370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 등가제약	450.106 ^{***}	230	.589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 등가제약	451.579 ^{***}	230	2.063

다음과 같다.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beta = -.524, p < .001$)과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beta = -.481, p < .001$)에서 남편과 아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Delta\chi^2 = 4.612, df = 230, p < .05$),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eta = .329, p < .001$)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eta = .504, p < .001$)에서 남편과 아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Delta\chi^2 = 5.391, df = 230, p < .05$),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및 개별매개효과

갈등대처방식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337개의 원자료에서 5,00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생성하였고, 신뢰구간 95%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95%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개변인이 2개(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이상인 다중 매개 모형에서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합산한 결과 값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개별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16개의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추가하여 부트스트래핑을 다시 실시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개별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beta = -.124, p < .05$)와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모두 유의하였다($\beta = -.059, p < .05$).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함으로써 남편은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수

표 6.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 CI	
				LL	UL
자기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애 →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254	.068	-.384	-.151
	아내 외현적 자기애 →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240	.071	-.358	-.097
상대방 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애 →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177	.084	-.333	-.032
	남편 외현적 자기애 →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116	.049	-.195	-.035

LL: 하한계, UL: 상한계

표 7. 갈등대처방식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CI	
			LL	UL
남편 자기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애 → 남편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간접 자기-자기효과)	-.124	.057	-.161	-.086
남편 외현적 자기애 → 아내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간접 상대방-상대방 효과)	-.059	.035	-.102	-.016
아내 자기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애 → 아내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간접 자기-자기효과)	-.158	.050	-.233	-.082
아내 외현적 자기애 → 남편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간접 상대방-상대방효과)	.002	.007	-.005	.009
남편 상대방효과				
아내 외현적 자기애 → 아내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간접 자기-상대방효과)	-.099	.050	-.153	-.044
아내 외현적 자기애 → 남편 갈등대처방식 → 남편 결혼만족도 (간접 상대방-자기효과)	-.018	.026	-.060	.025
아내 상대방효과				
남편 외현적 자기애 → 남편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간접 자기-상대방효과)	.012	.029	-.019	.042
남편 외현적 자기애 → 아내 갈등대처방식 → 아내 결혼만족도 (간접 상대방-자기효과)	-.094	.032	-.186	-.001

주. 통계변수: 결혼지속기간, 자녀유무

LL: 하한계, UL: 상한계

있다.

둘째,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와 아내의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beta = -.158, p < .05$),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하여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와 아내의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099, p < .05$). 이는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매개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하여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beta = -.094$, $p < .05$),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매개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함으로써 남편은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개인심리 변인 중 하나인 외현적 자기애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개별매개효과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모색하고, 부부의 결혼만족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부부의 자기애와 관계만족도는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자기심리학에서 제시하는 공감과 지지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높은 외현적 자기애는 자존감과 공감능력이 낮는데, 낮은 자존감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심리학에 기반한 개입이 적합할 수 있다.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낮은 공감능력으로 인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우자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 수용성이 낮을수록 정서적 교류나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고, 배우자와 긍정적인 관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병완, 홍혜영, 2015)는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인데, 높은 자기애로 상호 수용성이 낮아지고 헌신이나 배려가 부족하게 된다면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자에 대한 역할 수행이 어렵고, 그로 인해 관계가 손상되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부의 자기애가 결혼만족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Gewirtz & Finzi, 2018)와 일치하며, 외현적 자기애의 과대성이 자신의 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선우, 이영호,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부부 각자가 자기애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서 요구되는 헌신과 배려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부 상호 간의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감소되면서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외현적 자기애의 과대성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상대 배우자에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양육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배우자를 원망하고, 배우자에게 화풀이를 할 만한 기회를 노리며, 결혼생활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

(Kernis & Sun, 1994)와 연계해 본다면 배우자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좌절감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는 결혼 전반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인 성격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부부는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 특성을 상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상담과 부부교육에서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서 관계 강화와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분노, 복수심, 공격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을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자기애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가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특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들(박영화, 고재홍, 2005; 유보람, 2019)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아내의 경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결혼만족도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기중심성이 높은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인식하기보

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려고 하고, 자신의 요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그로 인해 아내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신의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의 행동방식에 불만을 가짐으로써 남편과의 관계에 불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자기중심성에 주목하여 남편의 행동방식으로 인해 아내가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요구와 배우자의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결혼초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고,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결혼생활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애 특성으로 인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급속도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Ye et al., 2016)를 고려하면, 자기애가 높은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는 서로의 요구와 기대를 고려하여 배려하거나 배려받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관계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외현적 자기애적 특성은 배우자를 동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배우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의사결정이나 역할을 주도하고,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부부들의 관계개선과 원만한 관

계유지를 위해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워크숍 등과 같은 다양한 개입과 더불어 부부의 자기애적 영향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자기애에 대한 자기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치료와 부부상담을 병행하여 개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치료에서는 성장과정에서 결핍된 자기대상과의 관계경험을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을 통해 자기대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된 자기대상의 욕구와 열망을 이해하게 되고, 상담자와의 공감 반응과 같은 정서적 체험을 통해 자기대상의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대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부부가 서로에게 지지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 시, 자기대상에 대한 정서적 체험을 부여하고, 부부를 대상으로 공감적 반응에 대한 시연과 지지적인 표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부가 자기애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천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과 아내의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자신의 행동방식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행동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특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갈등상황에서 행동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특성으로 인해, 아

내에게 비판하고 비하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 아내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거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남편과 논쟁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부적응적 전략을 유발한다고 보고한 김성미와 이수림 (201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아내의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유발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갈등이 잠재됨으로써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남편의 행동방식이 아내의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여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는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이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외현적 자기애 특성이 자신의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 특성 자체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낮추기보다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덜 사용함으로써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남편에 비해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를 사용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이승현,

이규호, 2022; 홍지희, 김보영, 2021)와 맥을 같이하며,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갈등을 잘 관리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 즉, 부부 갈등 시, 남편과 아내가 갈등 사안을 드러내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견의 차이를 수용하며, 배우자와 타협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부가 갈등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의 개인적인 요인과 상호관계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비임상적인 장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주요변인들의 수준들이 적응적으로 나타나, 부부의 외현적 자기애 수준도 낮았다. 본 연구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임상군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후, 연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자기애 성향이 있는 부부 상담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내의 외현적 자기애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내의 관련변인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내의 다양한 추가요인들을 확대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부부의 개인요인인 외현적 자기애와 상호관계적인 요인인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이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부의 자기애에 대한 자기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로 변화될 수 있다는 치료적 관점을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미선, 정인혜, 조서진 (2023). 중년 부부의 문제해결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33-53.
- 김성미, 이수림 (2018).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186-201.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지연, 주수산나 (2021). 목회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9(3), 605-627.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청람.
- 송진아, 전세송 (2023). 한국부부의 결혼만족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가족과 문화*, 35(2), 69-114.
- 안연주, 최연실 (2021). 개인 심리적 요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개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165-182.
- 애리텐, 안정신 (2021).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원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27-49.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87-101.
- 우종필 (2016).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아카데미.
- 유보람 (2019). 부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정서 표현 역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민진, 정진복 (2017).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양상: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19-146.
- 이성미, 이영호 (2021).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7(1), 55-81.
- 이승현, 이규호 (2022). 기혼여성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2), 87-113.
- 이연정, 최은실 (2022). 중년기 부부의 성인애착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가정과삶의질연구*, 40(2), 71-89. 605-627.
- 이영숙, 박경란 (2009).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275-286.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장해순, 한주리, 허경호 (2007). 갈등관리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퍼스널리티 요인. 성격 5요인(Big Five Factors), 자아존중감, 자기감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7, 418-451.
- 정병완, 홍혜영 (2015).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83-201.
- 최규련 (1988). 韓國都市夫婦의 結婚満足度要因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선우, 이영호 (2015). 이성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에 따른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만족도의 차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6(1), 21-40.
- 통계청 (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데이

- 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28&conn_path=I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 03. 02). 2021년 상담 통계. <https://lawhome.or.kr/new21/law05/>
- 한수정 (2018). 자기애성 성격장애. 학지사.
- 한영숙, 양명숙 (2020). 부모의 이혼 유무와 부부갈등에 따른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379-387.
- 한영애, 양혜. (2020). 중년부부의 마음 챙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 (APIM)의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8(3), 405-425.
- 홍지희, 김보영 (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원 대학원].
- Abe, S. & Ota, J. (2023).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Humor Coping on Anger Expression in Married Couple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65(1), 1-8.
<https://doi.org/10.1111/jpr.12344>
- Augsburger, D. W. (1996). *Helping People Forgiv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8).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Harcourt Canada, Limited.
- Brown, A. A. (2017).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ts in Relationships: A Perceived Control Perspective*. [Dissertation Abstract, The Ohio State University]
http://rave.ohiolink.edu/etdc/view?acc_num=osu149823282032602
- Cag, P. & Yildirim, I. (2018). The Mediator Role of Spousal Self-Disclos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8(3), 701-736.
<http://doi.org/10.12738/estp.2018.3.0086>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https://doi.org/10.1080/00223980009600873>
- Finzi, D. R. (2023). The Role of Fear of Intimacy as Mediator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 Dyadic Model. *Family Journal*, 31(3), 392-398.
<https://doi.org/10.1177/10664807231163254>
- Gewirtz, M. A. & Finzi, D. R. (2018). Narcissis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rom a dyadic perspectiv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aggression. *Marriage & Family Review*, 54(3), 296-312.
<http://dx.doi.org/10.1080/01494929.2017.1359814>
- Işık, R. A., & Kaya, Y. (2022).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tress, conflict resolution styles, spous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 19 quarantine. *Current Psychology*, 41(6), 3328-3338.
<https://doi.org/10.1007/s12144-022-02737-4>
- Karm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1), 4-13.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ohut, H. (2013). 자기의 분석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Kohut, Heinz. (1977).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urdek, Lawrence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Lamkin, J., Campbell, W. K., & Miller, J. D. (2015). An Exploration of the correlate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Homophily, partner characteristics, and dyadic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9, 166-171.
<https://doi.org/10.1016/j.paid.2015.01.029>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https://doi.org/10.1080/10705511.2011.607099>
- Philip, J. M. (2001). Linking conflict strategy to the five-factor model: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2(1), 47-68.
<http://dx.doi.org/10.1108/eb022849>
- Roach, A. J., Frai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3(3), 537-546.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https://doi.org/10.1111/j.1545-5300.2002.00659.x>
- Ünal, Ö. & Akgün, S. (2022a). Conflict resolution styles as predictors of marit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Studies*, 28(3), 898-913.
<https://doi.org/10.1080/13229400.2020.1766542>
- Ünal, Ö., & Akgün, S. (2022b). Relationship of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marriage with marital adjustment and satisfaction. *Psikiyatride Guncel Yaklasimlar*, 14(3), 322-330.
<https://www.psycnet.org/doi/10.18863/pgy.1016806>
- Ye, S., Lam, Z. K. W., Ma, Z., & Ng, T. K. (2016). Differential relations of narcissism and self esteem to romantic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perception discrepanc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4), 374-384.
<https://psycnet.apa.org/doi/10.1111/ajsp.12160>

논문 투고일 : 2024. 06. 17

1 차 심사일 : 2024. 07. 24

게재 확정일 : 2024. 08. 07

Interdependenc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Overt Narcissism and Marital Satisfaction

Suyeon Ko

Jeongyun Park

Chung 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ctor-effects and partner-effects of overt narcissism as a personality factor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s as an interpersonal factor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ouples. Data were collected from 337 couples through a survey conducted by a research institut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individual mediation effects were verified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 in the AMOS 2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husbands' and wives' extraversion showed direct self-effects on their own marital satisfaction. Additionally, husbands' overt narcissism demonstrated a direct partner-effect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Second, overt narcissism in both husbands and wives showed indirect self-effects through conflict resolution styles on marital satisfaction. Higher levels of husbands' overt narcissism influenced wives' maladaptive conflict resolution styles, which in turn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for both husbands and w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usbands' overt narcissism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s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It suggests that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considering overt narcissism traits and gender-specific characteristics could potentially enhance marital satisfaction for couples.

Key words : Overt Narcissism, Conflict Resolution Style, Marital Satisfaction, APIMeM